

보낸 사람: [모비프렌 대표이사](#)
받는 사람: yoony@edaily.co.kr; youngchaeyi@kormedi.com; hye1@yna.co.kr; heesuk@mt.co.kr; icarus@seoul.co.kr; park80@munhwa.com; zoo@yna.co.kr; cbebop@yna.co.kr; k0279@yna.co.kr; freewill@munhwa.com; ywlee@chosun.com; th0472@cbs.co.kr; ssing@edaily.co.kr; gaius@etnews.com; comja77@dt.co.kr; argus@asiae.co.kr; osh9981@yna.co.kr; yijoe@fnnews.com; cbchoi@seoul.co.kr; jupiter@munhwa.com; jhlhim@sed.co.kr; ms@sbs.co.kr; kimsj@etnews.com; jaehwan.cho@zdnet.co.kr; ahn708@asiae.co.kr; jamsam@donga.com; omk@munhwa.com; calling@cbs.co.kr; jun@newsis.com; epping@moneytoday.co.kr; guseul@edaily.co.kr; nahum@asiae.co.kr; mj@dt.co.kr; chkim@hankookilbo.com; jspark@dt.co.kr; okko@yna.co.kr; burbuck@chosun.com; jphong@yna.co.kr; chw1414@moneytoday.co.kr; thhwang@etnews.co.kr; minjung@hankookilbo.com; choon@asiae.co.kr; lennon@hankyung.com; jmkim@newsis.com; gustav@donga.com; joon@etnews.co.kr; oiseau@munhwa.com; buntle@munhwa.com; hynikos@newsis.com; cha@donga.com; songh@busan.com; europaean@sportschosun.com; parkkr0824@ytn.co.kr; younju@ytnplus.co.kr; sangjae@hankyung.com; hjpyun@newsis.com; jomarok@asiae.co.kr; nukus@chosun.com; bumblebee75@moneytoday.co.kr; hjkwon@newsis.com; baesm@moneytoday.co.kr; shlim@yna.co.kr; khkim@wowtv.co.kr; silverman@kyunghyang.com; nsshin@snu.ac.kr; jskwak@hani.co.kr; comma@yna.co.kr; baron@donga.com; hjkim01@fnnews.com; ykim@yna.co.kr; san@yna.co.kr; bong@zdnet.co.kr; mania@hani.co.kr; indepn@mt.co.kr; doctor@kbs.co.kr; ha.namhyun@joongang.co.kr; coeur@chosun.com; ninaplus@kyunghyang.com; himtrain@hani.co.kr; so2218@moneytoday.co.kr
제목: 모비프렌 서울서부지방 검찰청에 CJ 이재현 회장과 허민희 대표를 고소하다
날짜: 2018년 10월 26일 금요일 오전 10:13:13

안녕하세요?

저는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입니다.

2018년 10월 26일 오전 9시 현재 ,

국회 앞에서 페이스북 생방송으로 시위 중입니다.

생방송 시청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

<https://www.facebook.com/MobiFren/videos/895587110829973/>

안녕하세요?

저는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입니다.

저는 CJ의 무책임한 갑질행포의 피해 당사자로서 CJ 이재현 회장을 국감장 증언대에 세우기 위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4주째 하고 있습니다.

집권여당 민주당 산자위 간사 **홍의락** 의원은, CJ의 주장을 대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재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극렬히 반대 하고 있습니다. CJ 때문에 100여명의 일자리가 없어지게 생겼는데도, **홍의락** 의원은 “**이는 기업과 기업의 문제로 국회에서 다를 문제가 아니다**”라고 하면서, CJ 이재현 회장의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.

CJ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**홍의락** 의원의 태도에 분노로 인해 말도 더듬고 대화중에 눈물의 호소를 했지만 저의 말을 들을 생각도 안했습니다.

저희 직원들이 추석연휴에 받아온 2500여명의 서명서를 가지고 갔지만 비아냥만 들었습니다.

아래는 관련 영상입니다.

[영상 다운로드](#)

하루에 보낼 수 있는 메일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본 발신자 "모비프렌 대표이사" 메일 주소는 임시로 만든 것입니다.

메일 회신을 원하시면 jwheo@mobifren.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메일을 받으시는 분께서는 가능한 한 많은 분들에게 전달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.

CJ의 고질적인 갑질황포 근절에 도움이 됩니다.

감사합니다.

(주) 모비프렌 대표이사 허주원 배상

허주원/대표이사

Juwon Heo / CEO

(주)모비프렌

MobiFren Co.,Ltd

경북 구미시 인동52길 88

88, Indong52gil, Gumi, Gyeongbuk, Korea 730-300

Mobile : 010-7352-5270

Mobile :+82 10 7352 5270

Tel : 054-474-2220

Tel : +82 54 474 2220 (ext.400)

Fax : 054-474-2251

Fax : +82 54 474 2251

E-Mail : jwheo@mobifren.com

Email : jwheo@mobifren.com

Website : www.mobifren.com

Website

: www.mobifren.com

(주)모비프렌 서울지사

MobiFren Co.,Ltd, Seoul Office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7

3F,Samyong Bldg,437,Teheran-ro,Gangnam-gu,Seoul,

Korea

(삼영빌딩 3층)

TEL : 02-336-2220

TEL :+82-2-336-2220

(주)지티텔레콤이 (주)모비프렌으로
[Telecom changed to MobiFren](#)

[Please be noted that the company name of GT](#)

사명이 변경 되었습니다.

[All the other information are the same as before.](#)